

**지면안내** **02** 순항 중인 중앙기구, 2학기도 여세 이어갈까  
보도

**03** 활활 타오른 '불매운동', 가장 뜨겁게 타오른 '밀레니얼'  
사회

**06** 수도권도 늪는다? 노후관이 불러온 '붉은 수돗물' 사태  
학술

**08** 제47기 수습기자 모집  
광고

## 학부 · 트랙제 병행 중 수강신청 혼란 일어... 원만한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필요해



▲한 학생이 낙산의 메아리에 올라온 경영학부 학생회장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지난 8월,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앞두고 학내 익명 커뮤니티 '한성대학교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에 경영학부 전공과목 감소에 대한 불만이 연달아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공통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3학년 전공과목 개수와 트랙제로 인한 수강신청 선택권 축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밖에 역사문화학부 내 트랙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일어 학생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대학본부는 '문제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자신을 경영학부 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대나무숲을 통해 "작년 3학년 2학기에

개설된 경영학부 전공과목은 10개였다. 그런데 이번 학기 경영학부 내 3개의 트랙에 개설된 3학년 전공과목은 도합 5개로, 절반이나 줄었다"고 말했다. 학부제 학생들이든 트랙제 학생들이든 구분없이,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트랙제 커리큘럼을 도입하면서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어 그는 "심지어 기업경영트랙의 3학년 전공과목은 1개만 개설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불만에 많은 경영학부 학생들이 공감을 표출했고 결국 해당 사안은 이슈화됐다.

이에 대해 경영학부 교학팀은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정민(경영학부) 조교는 "개설된 전체 전공과목 수는 줄지 않았다"며 "트랙제의 시행으로 전체 78학점의 경영학부 전공과목이 3개 트랙에 배분돼 개설 과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즉, 학부제에서 트랙제로 학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발생한 '착각'이라는 것이다. 박 조교는 "1·2학기 동시에 개설되던 전공지정 과목들이 한 학기에만 열리게 된 것도 그 이유"라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 선택 폭이 좁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2학기 개설 과목이 유난히 적은

이유에 대해 "학부제 과목들이 트랙제 커리큘럼으로 편성되면서 일부 교과목의 배정 학년이 이동됐다. 그 과정에서 트랙마다 커리큘럼 상 선행 과목을 고려하다 보니 특정 학기에 강의가 몰리게 된 것"이라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년에 맞춰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영학부는 3학년 수강신청 하루 전날,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기존 트랙당 2과목씩 상호인정교과목으로 지정했던 것을 2·3학년 전공선택 과목 모두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박 조교는 "학생들의 졸업을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강의 편의성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도희(경영 4) 경영학부 학생회장은 "개강 후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불만을 듣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즉, 트랙의 특성상 모든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하지만, 고학년에 전공과목이 편중되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설된 강의 수가 적어 논란이 된 학과는 경영학부뿐만이 아니었다. 한 익명의 학생은 역사문화학부 내 트랙에 개설된 2학년 전공과목이 적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역사문화학부에 소속된 글로벌역사트랙과 역사문화콘텐츠트랙의 교과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개설된 전공과목은 3개뿐이다. 그는 "역사문화학부 내 2개의 트랙 모두를 선택한 2학년 학생들은 3·4학년에 남은 17개 과목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박준철(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역사문화학부는 트랙당 총 14과목만 개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모든 과목을 듣게 된다. 그래서 전공 선택의 폭이 더

좁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사지원팀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학부제가 트랙제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변화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시원(학사지원팀) 팀원은 "트랙제와 학부제가 공존하며 변화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내년 1학기 교과교육과정 편성 때 학부제 학생들이 전공지정 과목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학부 측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체 전공과목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학부제에서 트랙제로 변경되면서 배정 학년이 이동한 과목도 존재하지만 과목 수가 줄어든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부터는 교과교육과정에 학부제 커리큘럼은 완전히 사라지고 트랙제 커리큘럼만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복학하는 학부제 학생들은 현 상황과 마찬가지로 학부제 커리큘럼이 아닌 트랙제 커리큘럼을 따라야하므로 혼란을 겪게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학부 측과 대비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부제 학생들 가운데 커리큘럼을 이탈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년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들어 전공학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은 "학생이 자신의 학년에 맞춰 커리큘럼을 따라 온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경영학부 교학팀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김 팀장은 "학년별 커리큘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 문제를 겪는 학생들까지 만족시키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김 팀원은 트랙제가 4학년까지 도입되는 내년에야 학부제 학생들의 전공학점 미달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희연 기자

heeeyun96@naver.com

## 공학관 시설 노후화,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8월,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공과대학 수업이 진행되는 공학관의 노후화가 심각해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학우들의 강한 반응으로 이어지며 큰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학본부는 기능적인 하자에 의한 보수공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시각적인 노후화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매년 건물별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기된 불만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공학관 내 엘리베이터 시설이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하고, 책걸상이 노후화돼 불편하다는 것이다. 현재 공학관에서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는 단 1대로 A동에 자리하고 있다. 공학관은 A동과 B동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 통로로 이어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결통로가 3층과 5층에만 있다는 것이다. 즉, B동

고층에 가기 위해서는 A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3·5층의 연결통로를 거쳐 가거나, 처음부터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재현(기계전자 2)학생은 "매 수업시간 전 엘리베이터 대기 줄이 너무 길어 계단으로 올라갔던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계과는 공학관 B동 5·6층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힘들다"며 "B동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정도영(시설지원팀) 차장은 "공학관은 학교 뒤편에 자리한 '삼군부총무당'의 영향으로 문화재 보존영양 구역에 해당 한다"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만 증축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만약 엘리베이터가 증축되면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 홀, 방화구역, 통로 확보에 따른 실습실 및 공용공간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책상과 의자가 일체화된 책걸상도 문제였다. 공학관 4·6층에는 의자와 책상이 붙어있어 제대로 앉기조차 불편한 책걸상이 배치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 차장은 "해당 책걸상은 학과에서 요청 시, 우촌관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책걸상 재고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며 "공학관 실습실은 각 학과에서 집기비품 및 기자재의 교체 필요할 경우에 사유를 명시해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신청을 거쳐 승인받은 후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설지원팀은 향후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은 "공학관 실습실 및 탐구관 강의실의 천장재와 LED 전등 교체 등의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 기자사령

임 편집국장 장선아(사회과학 3)  
정기자 박희연(사회과학 2)  
면 부장기자 윤희승(행정 4)  
퇴 편집국장 강예림(사회과학 3)

### 동정란

공호근(응북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지난 8월 1일과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심사평가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홍상현(상상력교양교육원) 교수  
홍 교수는 지난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마포구에 위치한 이건하우스 갤러리에서 개인 사진전을 열었다.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 순항 중인 중앙기구, 2학기도 여세 이어갈까

총학생회 '등대'(이하 총학), 학생복지위원회 '또바기'(이하 학복위), 총대의원회 '공명'(이하 총대)이 지난 학기 동안 대체로 공약을 꾸준히 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총학은 주요 공약을 지난 학기에 대부분 이행했으며, 세부 공약은 이번 학기에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복위는 공약의 절반 이상을, 총대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총학 세부 공약 이행은 열린 결말

먼저, 총학은 13개의 세부 공약 중 '동아리 지원 확대'와 '근로비 지급일 확정 공지'의 이행을 완료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공약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 된 공약 중 학우들과의 소통을 위한 '총학생회 소통부스 정기운영'과 '정책공모전'은 현재 총학 내부에서 의논이 이뤄지고 있다. 정호재(무억 4) 총학생회장은 "소통부스는 실효성이 클 것 같지 않아 정책공모전에 더 집중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회의 내용 공개' 공약도 확운위 구성원들과 상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운위는 정·부총학생회장, 각 중앙기구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 과학실험회장, 트랙장으로 구성된 최고운영

<b>이행 완료</b> (웃음)	이행이 완료됐거나, 2학기에도 진행 예정됨	<b>이행 예정</b> (중립)	아직 이행되지 않았지만, 진행이 사실상 확정됨
<b>미이행</b> (슬픔)	이행되지 않았으나, 논의가 진행 중 혹은 예정됨	<b>이행 불가</b> (노발)	여러 이유로 이행 불가능

총학생회 '등대'	학생복지위원회 '또바기'	총대의원회 '공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학생회 소통부스 정기운영</li> <li>확대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li> <li>냉난방 시설 사용 규제 완화</li> <li>1학년의 학과·트랙 선거권 보장</li> <li>미래관 열람실 무인 프린터기 설치</li> <li>한성대학교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li> <li>정책공모전</li> <li>남학생 휴게실 확보</li> <li>재학생 주차금액 인하</li> <li>강의평가 열람기간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자판기(대체 이행)</li> <li>전시회&amp;연극 티켓 제공</li> <li>교내 물레 카메라 검사</li> <li>택배지킴이</li> <li>셔틀버스 대자보</li> <li>흡연구역 안내&amp;금연 캠페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의 체계화를 통한 대의원 편의 제공</li> <li>예산편성 지침서 작성 및 공개</li> <li>감사 OT 추진 및 질의를 위한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li> <li>총대의원회 공식 페이스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학 근로비 지급일 확정 공지</li> <li>동아리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관의 도난·분실 도서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산심터</li> <li>명절 귀향버스</li> </ul>

기구를 말한다. 대학본부와 수차례 이야기가 오갔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한 공약도 있었다. 그중 ▲미래관 열람실 무인 프린터기 설치 ▲남학생 휴게실 확보 ▲냉난방 시설 사용 규제 완화 ▲한성대학교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이번 학기에도 대학본부와 논의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재학생 주차금액 인하' 공약은 주차장 관리 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가격 인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 회장은 "공동 구매를 통해싼 가격으로 주차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공약은 이번 학기부터 대학본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1학년의 학과·트랙 선거권 보장 ▲강의평가 열람기간 확대가 그것이다. 그 외에 '도서관의 도난·분실 도서 확충'은 총선 당시 도서관 인기 도서가 종종 분실된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공약으로 밝혀졌다.

**학복위, 지속적으로 공약 진행해**  
학복위는 제시한 공약 8개 중 6개의 이행을 완료했고, 2학기에도 이를 꾸준히 이행할 예정이다. '전시회&연극 티켓 제공'은 지난 학기에 학우들을 대상으로 연극 티켓을 제공함으로써 지켜졌다. 하지만 '문학자판기' 공약은 금전적·공간적 제약이 발생해, 시험기간에 격려의 글귀와 함께 간식을 나눠주는 '시험기간 글귀 사업'으로 대체됐다. '교내 물레카메라 검사'와 '택배

지킴이' 공약도 모두 완료됐다. 이중 '교내 물레카메라 검사'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여름방학에 성북경찰서와 여성안심보안관의 도움 아래 진행됐다. 이외에도 '흡연구역 안내&금연 캠페인' 공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캠퍼스를 돌며 진행됐다. 또한, 교내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행됐다. 뿐만 아니라, 한성대학교 방송국(HBS)과 협력해

셔틀버스에서 학복위 사업을 방송하는 방식으로 '셔틀버스 대자보' 공약을 지켰다. 한편, '명절 귀향버스'와 공학관 뒤쪽에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는 '낙산심터' 공약은 2학기에 완료될 전망이다. 박민수(컴공 3) 학생복지위원장은 "명절 귀향버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부지구연합 학생복지위원회와 협력해싼 가격으로 티켓을 제공하려 한다. 현재 수요조사를 통해이용할 인원을 대략 파악한 상태"라며, "낙산심터는 현재 업체와 자세한 구성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공약 이행을 100% 달성한 총대

총대는 중앙기구 중 유일하게 총선 당시 내놓은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 일정의 체계화를 통한 대의원 편의 제공 공약은 대의원총회 혹은 상임위원회 정기총회 일정을 사전 공지했으며, ▲예산편성 지침서 작성 및 공개 ▲감사 OT 추진 및 질의를 위한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공약을 실천했다. 이은미(IT응용 4)는 "총대의원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을 통해 총대를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며, "2학기는 감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더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 상상빌리지 장맛비로 '물벼락', 곰팡이 대란으로 이어져...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방학, 상상빌리지 지하에서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해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해당 건물 지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기숙사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학 본부는 기존에 발생하고 있던 상상빌리지의 누수 문제가 장마철을 맞아 더욱 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학내 커뮤니티에 게재된 제보글에 따르면 상상빌리지 지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학생들에 의해 확인됐다. 작성자는 "심지어 복도에서는 곰팡이가 난다"며 "부실 공사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평소 상상빌리지의 운동 시설을 즐겨 이용하는

전유미(인문 2) 학생은 "운동하기 위해 방문한 GX룸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너무 습해 그곳에서 운동할 수 없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하에 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 요가실 벽면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어 불쾌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기존에 발생했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 설계를 진행했지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 더 많은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경(행복기숙사 유한회사) 행정실장은 "상상빌리지는 개관 이래 누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지원팀이 수시로 확인 후 건설업체와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도영(시설지원팀) 차장은 "누수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다"며 "건축공정 시공사에서 누수에 대한 보수를 수차례 시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수 하자 공사를 시행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누수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누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며 조금씩 보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다.

또한, 곰팡이는 외부 선큰(Sunken) 계단 화단 쪽 빗물 유입으로 지하에 위치한 요가실의 습도가 상승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차장은 "요가실은 지하에 있다 보니 환기가 되지 않고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가실에 발생한 누수(좌)와 곰팡이(우)의 모습

한편, 누수와 곰팡이는 사전에 예방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학본부의 입장이다. "상상빌리지 설계 당시 방수 공사 후 담수 테스트(일정 시간 동안 누수 여부를 파악하는 실험)를 시행했지만, 이 테스트는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에만 시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담수 테스트를 시행할 수 없는 곳은 시공 당시 누수 여부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요가실도 담수 테스트가 불가능했다"며 "이곳에는 방수 테스트(인위적으로 물을 뿌려 누수를 확인하거나

비가 올 때 누수를 파악하는 것)를 시행하며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개강 전까지 외부 방수보수와 실내 곰팡이 발생 부위 마감재를 교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8월 20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행사는 오전 11시 학부 졸업식과 오후 2시 대학원 졸업식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학위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이종훈 한성학원 이사장, 이상훈 총장 등 교내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사 465명,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학사 83명, 석사 128명, 박사 14명 등 총 690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 졸업식에서는 ▲우촌상 1명 ▲이사장상 1명 ▲총장상 72명 ▲총동문회장상 1명 ▲기업은행장상 1명 등 총 76명의 수상이

이뤄졌다. 이어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 ▲공로상 1명 등 총 2명이 수상했다.

대학원 졸업식에서는 ▲최우수논문상 1명 ▲우수논문상 8명 ▲성적우수상 15명 ▲특별공로상 1명 ▲공로상 29명 ▲총동문회장상 2명 등 총 56명이 상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김서울(무등산 4) 졸업생은 "졸업을 해서 뿌듯하고, 사회인이 될 생각에 설레다"며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 나은미 교수 외 학생 27명, 에세이집 출판

지난 6월 19일, 본교 나은미(사교와표현교육과정) 교수 외 학생 27명이 에세이집 '청춘 유니버스 : 아직은 젊은을 출판했다.

이 책은 지난 학기 개설된 자율교양 강좌인 '나를 위한 글쓰기' 수강생들의 과제를 모아 엮은 책으로, ▲CLOSE UP, ME ▲라떼는 말이야 ▲Fiction 속 Non-fiction ▲새벽라디오 "행복" 등 4개의 목차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한 학기동안 집필된 학생들의 글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담았으며, 내용 편집과 표지디자인도 학생들이 도맡아 작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은 "글을 쓰면서 나의 과거를 정리할 수 있었다. 학생들 모두 서로의 의견에 공감하려 했기에 '젊은 청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나 교수는 "평소 학생들에게 저자로서의 권위를 고취하고, 대학의 이야기를 다양한 세대와 공유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들여다보며 '진정한 소통'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서 판매 수익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심상우 기자 sangwo06531@naver.com

## 본교 '창의융합교육원' 새로 개설돼

지난 7월, 본교 재학생에게 인문·사회·디자인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가 융합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창의융합교육원(HS C&C School)이 신설됐다.

창의융합교육원은 산하에 ▲VR·AR ▲AI ▲빅데이터 ▲IoT·리빙랩 ▲스마트팩토리 등 5개의 교육·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각 센터는 이번 학기부터 각 분야의 전공, 교양, 비교과 프로그램 등 융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5개의 첨단기술 분야 중 본인의 전공과 연계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미영(C&C교육지원팀) 팀장은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전공 분야마다 첨단기술 분야 활용 능력을 지닌 전문인을 육성하려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연구관에 개관될 '상상파크' 역시 창의융합교육원이 관리·운영한다. 상상파크는 학생들이 창의융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교육공간으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 활활 타오른 '불매운동', 가장 뜨겁게 타오른 '밀레니얼'

## 20대 4명 중 3명 불매운동 참여...가치소비, SNS의 영향 높아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월, 반도체 소재 중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일본은 한일 간 분쟁에도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왔으나, 이번만큼은 정치 이슈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행보는 범국민적 불매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과거 불매운동이 일부 시민단체의 주도로 진행됐거나 일회적인 특성이 강

했다면, 이번에는 전국민이 나서 불매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니클로와 아사히 등을 비롯한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유니클로의 8개 신용카드사(하나, BC, 우리, 신한, 롯데, 현대, 삼성, KB국민)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대비 카드 매출액이 70%가 감소했다. 일본 맥주 수입 금액 역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월 대비 45%가 감소했다.

이같은 불매운동의 중심에는 1982년~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있다. 사실 이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과 가장 친숙한 세대였다. 그들 사이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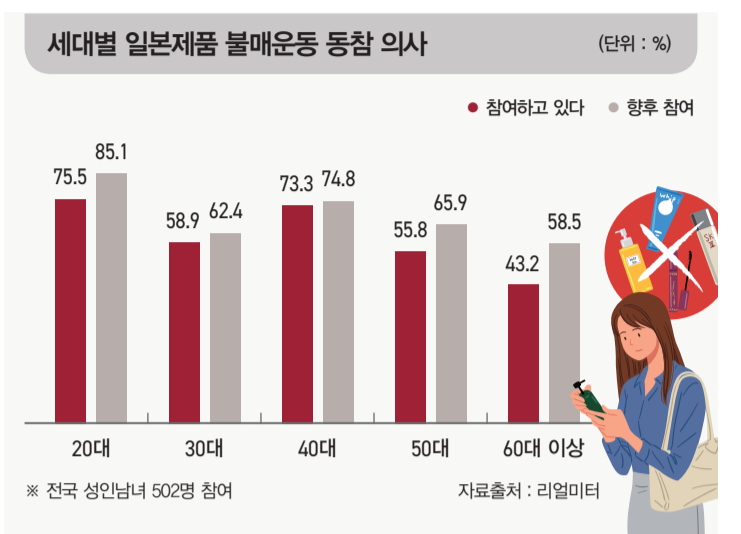
일본 문화와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고,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단연 일본이었다. 지난 2월, 하나투어가 최근 5년간 자사의 여행상품 예약정보를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 및 사회초년생(20~29세) 여행객의 선호도 1위 여행지가 '일본'으로 나타날 만큼 밀레니얼 세대의 일본 선호 경향은 뚜렷했다.

하지만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과는 전혀 판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 의사' 설문조사에서 20대 중 75.5%가 불매운동에 참여 중이라고 응답했고, 85.1%가 향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 세대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그렇다면 이들이 일본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소비'에서 찾을 수 있다. 가치소비란 소비에 자신의 신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지닌 소비자는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것에 결단코 소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영애(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책임이나 상품의 사용가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며 "그들은 지금의 일본 불매운동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본인의 SNS를 통해 'NO JAPAN'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시하거나, 일상 속에서 불매운동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SNS 등지에서 '#가지않습니다 #사지않습니다' 등의 해시태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실제 이들은 일본 문구류가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선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국산 제품을 애용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문구 기업 '모나미'의 매출은 7월 둘째 주에 직전 주 대비 39.8% 급증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이번 불매운동의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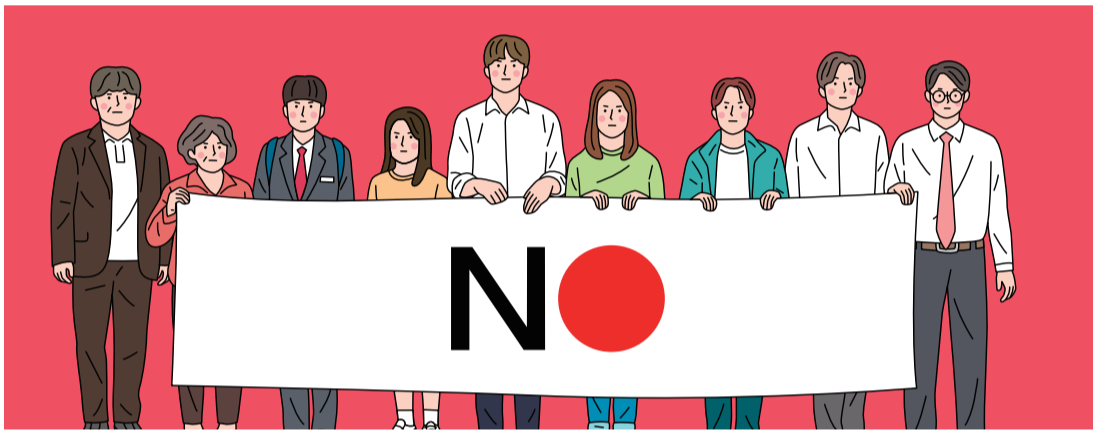
할 수 있는 'SNS'라는 외부 조건이 잘 갖춰졌다"며 "여기에서 2030세대가 주도권을 잡아 전 국민이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불매운동이 과열되면서 SNS 등 가상공간을 통해 '근거 없는 저격과 무분별한 소문 확산이 애꿎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우리나라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정 가치나 소비는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소비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지금의 일본 불매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고 되새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불매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 던져진 '대학혁신 지원 방안'... 공 넘겨받은 대학들

지난 8월 6일,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4일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서 구체화됨으로써 대학사회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교육부는 대학 정책의 방향을 ▲대학 자율 ▲지역 균형 ▲질적 제고 ▲다양성·개방성으로 설정했다. 또한 대학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진단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학이 진단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방 대학을 최대한 배려해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평가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권역과 전국의 자율개선대학 선발 비율을 '5대 1'에서 '9대 1'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2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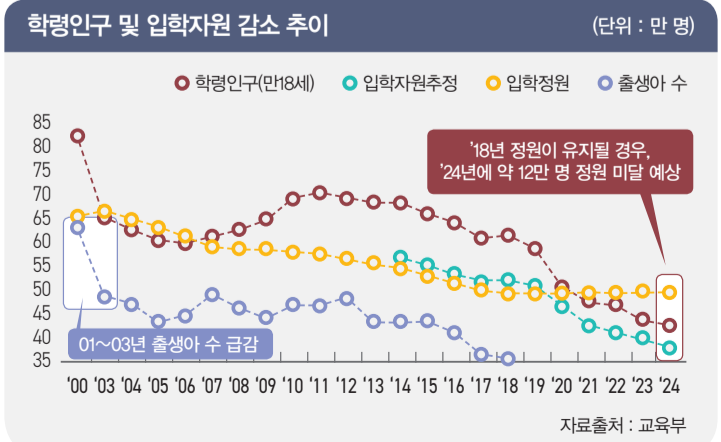
평가에서 전체 대학 중 자율개선대학을 권역에서 53.3%를 우선 선정할 후 10.6%를 전국 단위에서 뽑았다면, 3주기 평가에서는 권역에서 선발하는 비율을 90%까지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36% 가량의 대학도 평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낙제' 성적표를 받은 대학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배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입생 유지가 어려운 지방 대학과 그렇지 않은 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연덕원(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방 대학의 현실"이라며 "대안으로 권역 쿼터제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벌 사회, 인서울 현상 심화 등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기존의 대학혁신 기조를 완전히 뒤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두 번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비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과거 두 차례의 대학평가에서, 실질적으로 '낙제' 성적표를 받은 대학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번 '자율 혁신'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실제 감축 정원이 예상 감축 정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 연구원은 "당시 정부가 바뀌면서 대학 정책의 기조 역시 변화했다"면서 "하지만 감축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감축율은 저조했다"며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시장에 맡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자율 혁신'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다. 이밖에도 ▲재정 사업 세부 계획 미비 ▲폐교 대학 대책 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그간 미흡했던 지자체와 지역 대학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같은 맥락으로 오는 2020년에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사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해마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대학은 과연 '육참골단'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교육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7사건 리고 지금

### 처벌 강화 나선 '아청법', 남은 '빈틈' 채우려면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본 사건은 조두순이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범국민적 공분을 샀다. 동시에 성범죄와 아동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을 속속히 개정했다. 2010년에는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의무 부착기간이 연장됐고, 2011년에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를 거듭해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지금, 아동성범죄의 중심에 서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서는 지난 8년간 아동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이가 2008년 1,182건, 2016년 1,2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추산하면 16.66건에서 21.26건으로 약 28%가 증가한 수치다. 새로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아동성범죄 사건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청법 역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7월, 아청법 제8조 2항에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 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기존 성범죄와 아동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20조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게 행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박연주(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신미약 등으로 인한 감경은 여전히 구체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형사범죄의 감경에는 양형요소가 적용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 도덕적 평판이 감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도덕적 평판이 좋지 않으면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친권자 및 보호자 등 면식 관계 가해자의 형량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아청법의 '빈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미흡한 실정에 박 교수는 "피해자가 면식 관계에 따라 특별한 저항을 못하는 경우에는 친권 관계가 오히려 형량을 감경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형량의 기준을 결정하는 규정이 뚜렷하게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 당신의 채널을 '캐스팅' 하겠습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1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이하 크리에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야말로 '유튜브(YouTube) 전성시대'다. 해성처럼 등장한 '유튜브'는 이전까지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포털사이트를 제치고 미디어 분야의 유일무이한 최강자가 됐다. 이에 발맞춰 최근에는 너도나도 유튜브에 뛰어들어, 자신의 끼와 매력을 맘껏 뽐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유튜브가 가져온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크리에이터가 가진 영향력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커졌다 보니, 이들을 관리할 곳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MCN(Multi Channel Network)이다. 크리에이터가 오롯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이며 교육이며 모든 잡일을 도맡아 보살펴주는 곳 말이다. 자신의 크리에이터를 상위 1%로 만들기 위해 자처하고 나선 MCN의 속내를 꿰뚫어봤다.

## MCN, 네 정체가 뭐니?

MCN은 유튜브의 고장,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크리에이터를 무작정 대량으로 모집한다는 점에서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는 현재 MCN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최근의 MCN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란 이름처럼 활동 범위가 매우 넓다. MCN을 단지 한 가지의 정의로 구분 짓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다. 주로 통용되는 의미는 유튜브 채널을 묶어 관리하는 일종의 '크리에이터 기획사'지만, 그게 전부 아니다. MCN이 연예 기획사처럼 '스타 육성'에만 치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만 제공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MCN은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제작사와 방송사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채널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MCN 업체가 방송에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결국 제작사 및 방송사에 통용됐던 제작·유통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MCN의 전성기는 -ing

국내에 존재하는 MCN 업체는 약 100개가 넘는다. 본격적으로 국내에 MCN이

등장한 시기가 2013년임을 감안했을 때,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CJ ENM'처럼 선두주자로 나섰던 사업자들은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해외지사 확대 등으로 점점 더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빌리지', 'NTC' 등 신생 사업자는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을 통해 주목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특정 장르의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MCN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테면 '샌드박스네트워크'는 게임, '캐리소프트'는 키즈, '레퍼리'는 뷰티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MCN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 채널과 MCN 회사를 동시에 운영 중인 문용현(마이룸TV) 대표는 "예전보다 유튜브로 성공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시장 또한 플랫폼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MCN도 자연스레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MCN은 어떻게 전개될까. 이에 대해 김 평론가는 "1인 미디어의 관점으로 접근했던 MCN이 이제는

조직화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향후에는 MCN과 결합한 크리에이터가 유튜브의 주를 이룰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그는 "크리에이터가 MCN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능동적인 태도로 창의적·실험적인 콘텐츠를 떠올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MCN도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유통하는 체계를 갖춰, 획일화된 콘텐츠가 생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컴퓨터가 즐비한 사무실은 얼핏 PC방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이들이 놀고만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MCN 회사의 직원들은 온종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편집을 기획하는 것에 여념이 없다.

##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나?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놓여있다.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견제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당장 요식업계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수백 개의 자영업자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그중 극소수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음식의 맛은 물론 매장 분위기도 좋아야 하며, 차별화된 메뉴와 비주얼, 마케팅 등 홍보까지 빠짐없이 신경 써야 한다. 여느 업계가 그렇듯 크리에이터 시장도 그러하다. 크리에이터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MCN 역시 크리에이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서포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 기본기는 탄탄, 핵심만 쏙쏙!

대부분의 MCN 회사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크리에이터 지원'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때 크리에이터 지원에는 ▲영상 편집 ▲일러스트 디자인 제작 ▲방송 세팅 ▲유튜브 알고리즘 관리 ▲스튜디오 대여 등 제작 전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이 과정들은 주로 콘텐츠 소재나 기술이 부족 하더라도 기획력이 좋은 크리에이터를 돕는 데 쓰인다.

크리에이터 육성은 1인 미디어에 갖 입문한 초보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약 660팀의 크리에이터를 보유한 '트레저헌터'는 1년에 5~6번씩 모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권병민(트레저헌터 R&D 캠프장) 본부장은 "콘텐츠와 관련된 제작법을 비롯해

저작권과 세법, 소프트웨어 등 다방면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콘텐츠 자체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범부터 마케팅 등의 전반적인 지식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별 채널에 맞춘 1:1 솔루션을 제시해 크리에이터별로 독자적인 채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 덕후를 위한 실물 영접은 필수

완벽하게 기본 교육과정을 마친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채널을 갖게 된다. 이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월등히 높다면, 크리에이터에게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Fandom)이 형성된다. MCN은 이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 소수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팬미팅이나 사인회 등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 하나의 축제를 형성하고 있다. 크리에이터가 오프라인으로 팬을 직접 만나고, 저마다의 콘텐츠를 뽐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크리에이터는 주로 팬미팅 같은 단독 행사를 선호한다. 이밖에도 소속된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개최한 페스티벌이 화제성이 높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팬덤이 두터울 경우, 자신의 콘텐츠 분야와 관련한 MD(Merchandise)도 내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뷰티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경우 화장품을 타 브랜드와



▲(왼쪽)크리에이터 '양명TV'의 MD인 인형과 페이퍼 토이. 양명의 주 콘텐츠인 마인크래프트 캐릭터가 똑같이 구현돼 눈길을 끈다. (오른쪽)뷰티 크리에이터 '유갯잇'이 런칭을 통해 발매한 화장품 화보. 크리에이터가 직접 향과 색상, 질감 등 모든 것에 참여했다.

런칭하거나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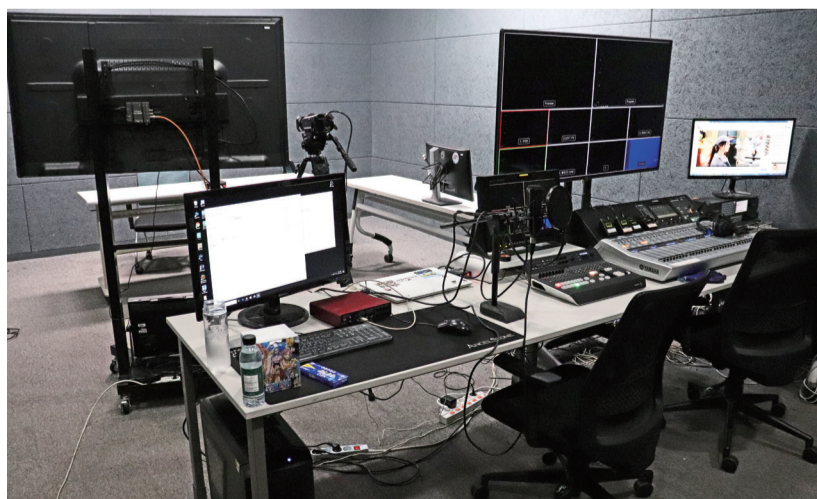
## 그런데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도 수백수십 명의 크리에이터가 MCN과 함께하고 있다. 혼자 힘으로만 채널을 꾸리기 어려운 크리에이터에게 MCN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MCN은 어떻게 크리에이터와 손을 잡을까?

MCN 업체들은 각자 기준을 세워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있다. '트레저헌터'는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조회수가 적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주된 콘텐츠가 창의적일

경우에는 조회수보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주기가 일정하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마이룸TV'는 향후 한 달 동안 업로드할 영상의 기획안을 받아 크리에이터의 역량을 판단한다. 문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라며 "구독자가 1천 명이 하인 크리에이터에게는 빅데이터로 뽑은 인기 키워드 10개를 제시해 자신만의 영상 기획안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SDWN'은 10대 청소년만을 크리에이터로 모집하기 때문에, 10대에 걸맞은 콘텐츠를 제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촬영을 위한 작업공간이 마땅치 않은 크리에이터에게 제공되는 스튜디오. 이곳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을 맘껏 뽐낼 수 있는 무대다.



# 넘버 원(No.1)과 온리 원(Only One) 사이

대학축제의 달 5월, 축제를 즐기는 많은 이들 사이로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흔하디 흔한 대학축제에 낯선 조리복과 사시미 칼을 든 남자. '프로의 향기를 뽐내는데 그는 유동민(25) 셰프다.

우리학교 미래플러스대학 호텔외식경영학과 19학번으로 입학한 그의 경력은 화려하다 못해 눈부시다. 이런 그가 어떻게 쫓겨간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걸까. 유 셰프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 넘버원(No.1)이 되기까지

학창 시절, 그의 담임 선생님은 그에게 '요리에 미친 놈'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의 별명이 방증하듯, 그의 학창 시절도 요리를 떼어놓고 말하면 서운할 정도다. 더군다나 그가 진학한 요리 전문 고등학교는 그에게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피자 화덕은 물론 와인 숙성실까지, 실제 업계와 유사한 환경에서 유 셰프는 밤낮없이 요리에 전념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고등학교 재학 시절 유 셰프는 한 유명 대기업 일식당에 입사했다. 하지만 입사 직후 호텔조리팀의 막내였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요리가 아닌 다른 업무였다.

"온종일 식자재 같은 물건을 검수장에서 가져오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가기 일쑤였죠.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쉬워서 껌을 하나 부렸어요.

남들보다 3시간쯤 일찍 출근해서 수족관에 서 생선 한 마리를 몰래 꺼내어 숨겨둔 거죠. 그리고 그 생선으로 남들 쉬는 시간에 몰래 연습했어요. 요리를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역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던가. 일하는 와중에도 요리를 틈틈이 연습한 유 셰프는 사내 요리 대회에 출전했다. 노력은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당시 일정 순위 안에 들어야만 주어지는 '챌린저'에 그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운도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블라인드 테스트였기에 제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싶어요. 오로지 요리만 보고 평가하니 제게는 플러스 요인이었을까요(웃음)?"

## '국가대표' 요리사의 자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 셰프는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도 꾸준히 국내·외 요리대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를 묻자, 주저 없이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2014 룩셈부르크 요리 월드컵'을 꼽았다.

"생소할 수 있지만 요리 월드컵도 다른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4년에 한 번씩 열려요. 국내 예선을 치르고 룩셈부르크에 갔을 때 걱정이 컸어요. 한식의 세계화가 제 손에 달린 것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해외 타지에서 열리는 대회라 우리나라와 식자

재가 달랐거든요. 주최 측에서 제공해주는 재료를 써야 했기에 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같은 걱정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 사용 음식도 만들어야 해서 걱정할 시간조차 아까웠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30분 정도 잤을 거예요. 온종일 요리하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서서 졸면서 요리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해야만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몸 하나 불살랐어요."

노력의 보상은 참으로 달콤했다. 단체전 동메달, 개인전 은메달, 한국 대표로 나간 첫 월드컵에서부터 그는 한식 '넘버원(No.1)'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것이다.

## 마냥 그런 새내기 아니다

이러한 그가 어떻게 우리학교에 입학하게 됐을까. 현업에 7년간 몸담았던 그에게도 가슴 한 켠에 무언가 하나 자리잡았다. 바로 '배움의 열망'이다. 결국 그는 국내 요리대회 출전 당시 인연이 닿은 교수님께 우리학교를 추천받아 입학할 결정을 했다. 배움도 배움이지만 이외에도 얻을 것이 많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대학교에 가면 '요리의 이론'에 대해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물며 재직자를 위한 특수학과다 보니 아무래도 현직에 종사한 경력자 있는 분들이 많아 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입학한 지 3개월 쯤, 그에게도 대학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다른 학생들과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는 교학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유 셰프는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 붙였다.

"솔직히 학생들에게 퍼줄 생각으로 참여했어요. 보통 초밥을 생각하면 비싼 가격을 떠올리는데 학생들이 먹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초밥을 판매하고자 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맛있게 먹어주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의 노력을 하늘도 안 것일까. 그는 축제에서 존재감을 백분 발휘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학생들이 너무 몰려 번호표를 배부하기도 했다. 또한 SBS가 제작하는 유명 온라인 콘텐츠인 '스브스뉴스'에도 출연해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 이제는 온리 원(Only One)을 향해

훗날 그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가성비와 가심(心)비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큰 탓이다. 유 셰프는 "제가 만든 음식을 최대한 많은 분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을 뒀어 반드시 우리 가게에 와야만 드실 수 있는 음식들

만드는 게 목표예요. 손님에게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라며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한성대신문> 독자들에게 전 하고픈 말이 있다고 했다.

"남들과 경쟁해서 넘버원(No.1)이 되든가 남들과는 다른 온리 원(Only One)이 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해요.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 과정을 겪다 보면 '미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대학 축제에서 뜨는 19학번 드드**

1 학생들은 축제에서 유 셰프의 최상급 초밥을 즐겼다. 여기에서 발생한 판매수익금은 전액 기부돼 훈훈함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자료제공 : 스브스뉴스) 2 그가 유명 대기업 일식당에서 일했던 당시의 모습이다. 3 유 셰프가 직접 만든 '니가리시시(생선 초밥)'이다. 그는 이 메뉴가 가장 자신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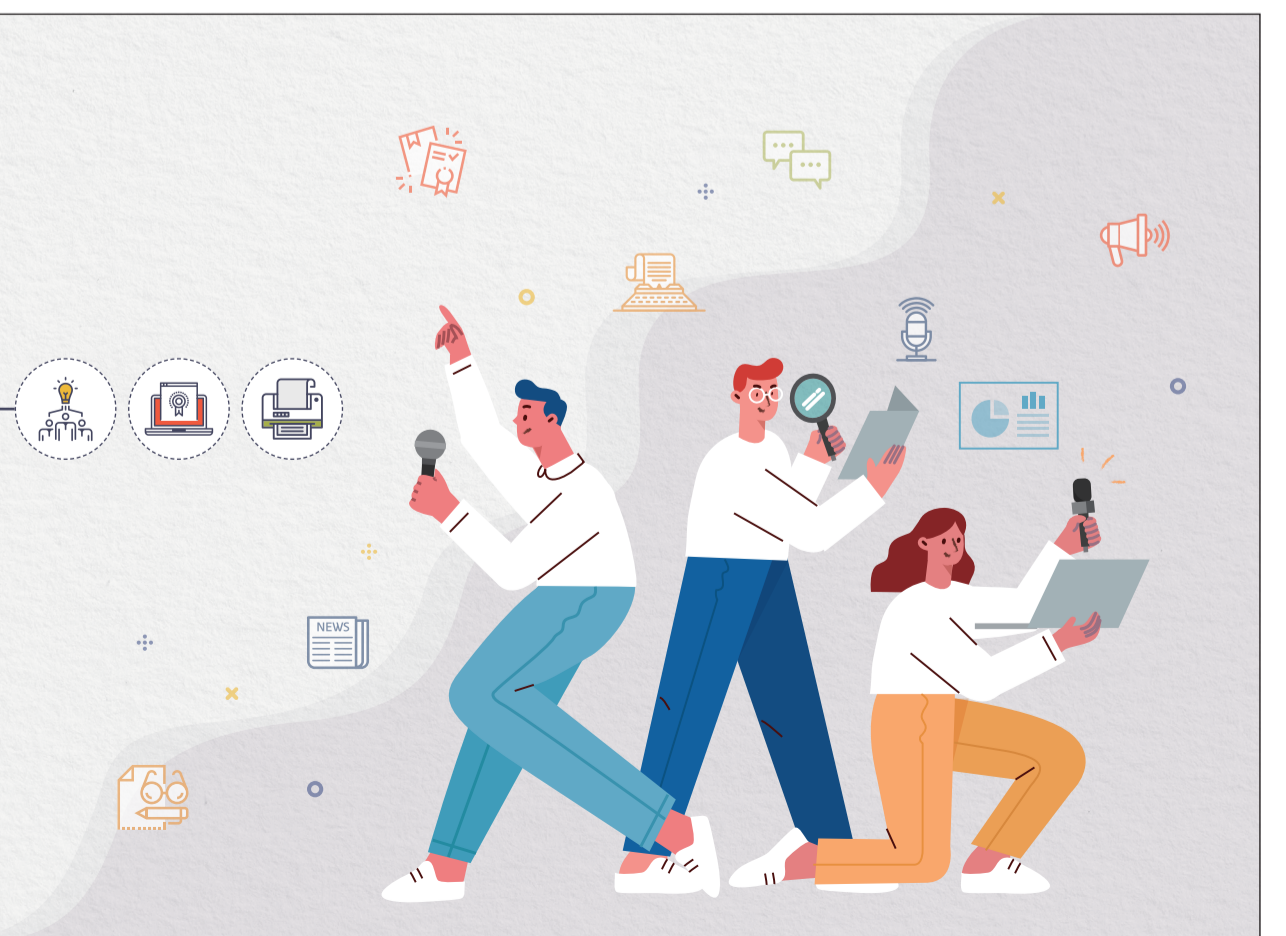
# 제보, 칼럼 모집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

Tel. 02)760-4186

E-mail. hansungnews@gmail.com



# 수도관도 늙는다? 노후관이 불러온 '붉은 수돗물' 사태

지난 5월, 인천 서구 부근에서 불순물이 섞이거나 붉은 색을 띠는 수돗물이 공급돼 논란이 일었다. 이어 서울시 문래동에 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다시 한 번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수돗물 '아리수'가 식용수로 홍보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인천에서 혼탁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물때와 물의 성분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돗물은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 세균 제거를 위해 염소(Cl)로 소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물속에 있던 망간(Mn)과 철분이 염소와 만나면서 수도관 벽에 달라붙어 물때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관에 흘러들어 온 물의 양과 속도가 증가하면서 물때가 수돗물에 섞여들어간 것이다.

수돗물이 붉게 나타난 것 역시 물의 성분과 관련이 있었다. 박재우(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물이 대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대기에 있던 이산화탄소(CO<sub>2</sub>)가 물에 녹아 탄산(H<sub>2</sub>CO<sub>3</sub>)이 생성된다. 이때 탄산이 산소(O)와 결합하면

산화철(FeO)과 철수산화물(FeOOH)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물이 붉게 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에서 발생한 혼탁수 문제는 수도관 재질에 원인이 있었다. 수도관은 물 공급 과정에 따라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옥내급수관 순으로 나뉘는데, 이중 배수관과 급수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사용하던 배수관은 1973년 이전까지 자주 쓰이던 '콜타르 에나멜'이 피복된 '도복장강관'이다. 여기서 도복장강관이란, 수도관으로 이용되는 강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복장(물체 표면에 고체 보호막을 만들어 주는 도료를 강관 내부에 코팅하는 것)'이라는 특수처리를 한 관을 의미한다.

도복장강관의 도료로 콜타르 에나멜과 블로운 아스팔트가 주로 사용되는데, 두 재료 모두 유기용매(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에 쉽게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관이 노후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부식돼 떨어져 나가 수돗물에 섞여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1994년 이전에 부설된 급수관도 문제가 됐다. 노후된 급수관 대부분에는 강관에 아연(Zn)을 코팅한 아연도강관이 사용됐다. 그런데 강관 내부에 코팅돼 있던 아연이 이온을 발생시키고 쉽게 부식돼 수돗물 오염에 기여한 것이다.

이같은 기존 재질의 단점 때문에 서울시는 다른 재질로 수도관을 부설하기로

했다.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강관을 대신할 배수관은 '덕타일 주철관'이다. 덕타일 주철관은 기존 배수관 재질에 비해 부식이 적은 편이다. 쇠 중에서도 탄소 함유량이 3~3.6%인 주철로 만든 주철관은 탄소(C)를 함유해 쇠보다 가볍고, 합금속이라는 성질 때문에 더 단단하다. 덕타일 주철관은 여기에 세륨(Ce)이나 마그네슘(Mg)을 첨가해 만든 것으로, 강도가 매우 높아 수도관으로 많이 이용된다.

급수관으로는 아연도강관에 비해 화학 반응이 적은 스테인리스강관이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테인리스강관이 물을 만났을 때 '부동태 피막'이라는 보호막을 형성해 쉽게 부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테인리스강관은 부동태 피막을 형성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제작된다. 첫째는 질산을 이용한 것이다. 철(Fe)과 탄소를 결합해 만든 강을 질산(HNO<sub>3</sub>) 속에 넣고 질산 농도를 약 65%로 유지하면 산이 철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한다. 또, 일반 철에 크롬(Cr)을 12% 이상의 비율로 첨가했을 때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박 교수는 "스테인리스강관은 이 기술을 활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내식성과 위생성이 매우 우수하다. 강도도 아연도강관보다 높아 압력에 견디는 힘이 강해 수도관으로 사용하기에 더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에서 혼탁수 문제가 발생한 또 다른 이유로는 '사고 지역의 특수한 위치'도 한 몫 했다. 수돗물은 ▲취수원 ▲취수장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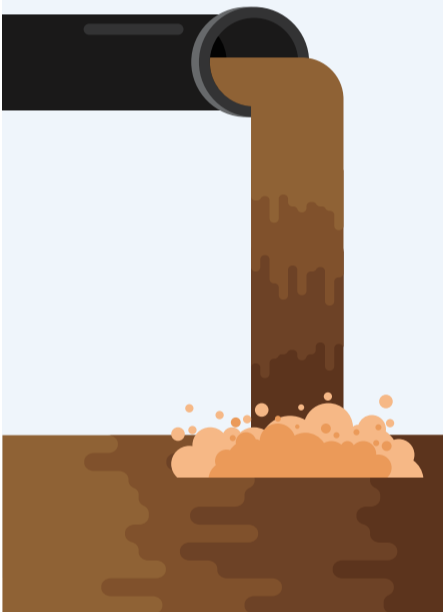
▲여과지 ▲염소투입실 ▲정수지 ▲배수지의 과정을 거쳐 가정으로 공급된다. 이중 배수지에서 가정을 잇는 수도관을 배수관이라고 하는데, 혼탁수가 유입된 문래동은 바로 이 배수관의 끝부분인 '관말지역'에 위치한다.

비유하면 손가락, 발가락의 말단부분과 같다. 따라서 정제수로 인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수질 악화가 쉽게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설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박 교수는 "관말지역은 인간의 몸에



## ♀ 궁금한성(性)

### 몸속을 수놓는 불꽃놀이, 오르가슴

'팡팡' 소리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아름다운 불꽃놀이는 우리에게 시각적인 황홀함을 선사한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불꽃보다 더 황홀한 불꽃이 우리 몸 안에서 피어나는 때가 있다. 바로 '오르가슴'을 느낄 때다.

이 오르가슴을 황인섭(예화인여성의원) 원장은 "오르가슴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 중 '최고의 쾌감'이자 '최고의 절정'이라고 표현한다. 불꽃, 쾌감, 절정. 표현은 모두 휘황찬란하지만 그저 표현만 있어서는 머릿속에 물음표만 불꽃놀이처럼 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오르가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 쾌감의 극점, 오르가슴

오르가슴이란 성기 자극 또는 신체 자극으로 성교 시 쾌감이 차츰 증가해, 마침내 그 극점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성 반응 주기는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쇠퇴기로 구성되 있는데, 이 중 절정기가 바로 '오르가슴'이다.

우리의 몸이 신체적·정신적인 자극으로 흥분 상태에 다다르면 뇌는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을 생식기로 공급한다. 이때 심박수와 호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중추신경계에서 뇌의 보상체계(기분 좋은 효과를 넘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는 뇌의 회로)로 쾌락 신호를 보낸다. 이를 통해 증폭된

쾌락이 누적되어 마침내 오르가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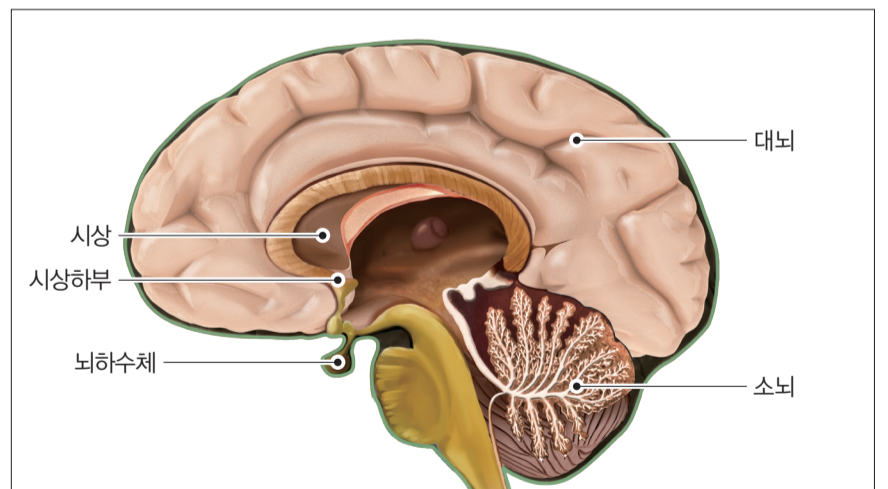
흔히들 오르가슴은 여성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먼저 남성이 오르가슴을 느낄 때, 항문의 괄약근과 전립선, 음경의 근육은 빠르게 수축한다. 이때, 이들의 오르가슴은 사정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약 3~10초 사이에 이루어진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질, 항문, 골반 근육이 수축되며, 20초 동안 지속된다.

황 원장은 "남성은 오르가슴 후 불응기가 찾아와 일정시간 오르가슴을 느낄 수 없다"며 "이와 반대로 여성은 대부분 불응기가 없기 때문에 오르가슴을 연속적으로 느끼는 '멀티 오르가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오르가슴의 지휘자, 뇌와 호르몬

그렇다면 오르가슴의 환상적인 느낌은 어떤 기관이 만들어낼까? 우리가 오르가슴을 느끼도록 가장 '열일(열심히 일하다)'하는 기관은 바로 '뇌'다. 미국 럿거스 대학의 배리 코미사루크(Barry Komisaruk)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뇌는 오르가슴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르가슴 발생 초기에는 온각·통각·



▲뇌하수체의 위치

촉각의 중추인 대뇌피질 중 감각영역이 활성화되며, 감정과 장기기억, 호르몬을 관장하는 변연계가 활동하게 된다. 또한 쾌감과 보상을 관장하는 측좌핵도 크게 움직여 우리로 하여금 쾌감을 느끼게 한다. 이외에도, 장기 기억과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해마가 활성화되면서 뇌에는 그야말로 '불꽃놀이' 같은 환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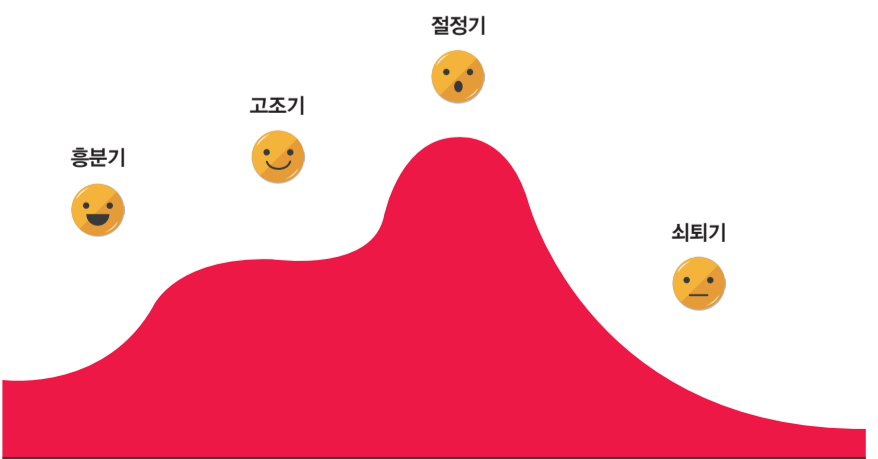
절정에 가까워질수록 소뇌와 전두엽의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시상하부 또한 활성화된다. 여기서 쾌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돼 근육이 수축된다. 이 일련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옥시토신은

오르가슴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뇌하수체 후엽 가운데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또한 이것은 생식기 근육, 골반, 항문의 괄약근을 수축시켜 강렬한 쾌감을 만든다. 이런 특징 때문에, 혈중 옥시토신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강렬한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

황 원장은 "옥시토신은 쾌감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 때문에 오르가슴은 연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명약"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인간의 성반응 주기

· 삼 학 송 ·

### ‘수강신청’이라는 이름의 악몽

배가 고프면 밥시간이 됐음을 알 듯, 방 중 내내 조용했던 학내 커뮤니티가 소란스러워졌다는 것은 개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관례적으로 매 학기 개강 직전이면 우리학교 모든 커뮤니티는 너나 할 것 없이 들쭉인다. 이번 학기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수강신청’ 때문이다.

이번 수강신청에 발생한 여러 잡음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한 트랙제 커리큘럼 도입이었다. 이에 기존 학부제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했고, 트랙제 학생들은 본인 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이 적은 상황에 공분했다. 결국 논란이 된 학부는 상호인정교과목을 추가 배정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당장 내년 이후로 복학할 학부제 학생들과 커리큘럼을 이탈한 학생들이 겪을 혼란에 대비책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1학년 수강신청 당일, 전산 오류가 발생해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정시에 진행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본부는 트랙기초 과목 수강인원을 늘리거나, 상상력인재학부 학생만 수강신청 정정 10분 전부터 5분 동안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학생들이 본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이번 수강신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두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데,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다. 교육학용어사전에서는 학습권을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및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며, 자유로운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다. 더욱이 이를 위한 합당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말이다.

하지만 현재 대학가에는 학생들이 정당한 대가인 등록금을 지불함으로써 획득한 학습권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듣고 싶은 강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필수 강의조차 듣지 못해 졸업이 늦어지는 사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마치 학생들이 역으로 대학에 강의를 ‘구걸’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학교 측에서는 개별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지금의 작태를 용인할 수 있느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더욱이 이번 수강신청 사태처럼 ‘어쩔 수 없다’, ‘학생의 양해를 부탁한다’는 식의 논리로 명백한 ‘학습권 침해’를 용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작태를 보면 학습의 무한한 장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학습권 침해가 과연 오늘날의 정상적인 고등교육 현상인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현재 대학들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들 존재 근간에 ‘공적 교육 제공’이 있음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강신청 악몽’을 맞이한 한성대학교가 과연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기는 한가 생각해 본다. 우리는 과연 언제쯤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장선아 편집국장

### ■ 의화정

## 직업으로서의 공직 가치와 경쟁력

공무원은 좋은 직업일까? 직렬마다 차이는 있으나 2019년 기준 국가직 공무원 공채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9.2대 1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빠른 질문일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경쟁시험을 거친다. 선발시험을 통과할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직의 문호가 열려 있고 입직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정년이 보장된다.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공직은 분명 ‘좋은 일자리’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고려한다면 이것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자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집권 정당에 공직 임명권을 부여한 엽관제도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수십 년 간 유지되었으나, 부패

문제와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883년에 폐지됐다.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도 혈연, 지연,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는 정실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실주의의 비효율성과 부패 문제가 제기되고 능력에 입각한 공직체계의 도입을 주장한 노스콧-트레빌리언 보고서가 1854년 발표되면서 실적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개경쟁과 같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기존 공직체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공직자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이유는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경쟁력은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직자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환경변화와 맞물려 직업으로서의 공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책임성과 윤리의식,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선발방식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직업으로서 공직을 희망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공직의 본질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직을 선택하기에 앞서 단순히 ‘좋은 일자리’만이 아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공직 가치가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지 깊이 있게 고민할 시점이다.

조문석(사회과학부 법&정책) 교수

### ■ 기사수첩

## 우리가 그리는 곡선

지난 4월, ‘2019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발표됐다. 이 지수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자유도를 순위화해 발표하는 지수다. 평가 기준은 ▲다원주의 ▲언론 독립성 ▲미디어 환경과 검열 ▲투명성 등으로 이뤄져 나름의 공신력을 가진다. 올해 한국은 41위, 옆 나라 일본은 67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결과를 접하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다. 과연 학보사의 언론자유지수는 어떻게

대학언론 즉, 학보사의 언론자유지수에 관한 정확한 지표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타 학보사의 사례와 과거에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비추어 볼 때 좋은 평가는 어려울 듯하다. 최근까지도 학보사의 편집권 침해 사례는 국·사립대학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강대학교 공식 학보사인 《서강학보》는 주간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해 전면을 백지로 발행한 바 있다. 과거 본사도 부분적으로나마 백지발행을 진행한 바 있기에 《서강학보》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동시에 타 학보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당시 기자가 ‘각 학보사의 편집권은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기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편집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학보사가 있는가 하면, 주간교수가 무리한 기사 수정을 부탁했다는 학보사까지 그 형태도 학보사 수만큼 다양했다.

그럼에도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바로 ‘남들보다 나은 편집권 침해’다. 이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라면 기사 수정을 거부하는 기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두 의견은 ‘정당한 취재권과 편집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면에서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서강학보》의 백지발행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한편으로, 시대착오적인 편집권 침해가 가득이나 학생들의 무관심에 신음하는 학보사에 연이은 약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렇다면 작은 사회라 불리는 대학사회 속에서 ‘대학언론’은 어떤 곡선을 그릴까. 두 곡선의 격차가 커질수록 괴리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그 간극을 좁히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학언론이 발행하는 신문의 자유지수가 적어도 하향곡선은 아니길 바란다.

심상우 기자

### 읽으면 보이는 초성퀴즈

- ※ 이번 신문의 주요 키워드를 담은 초성퀴즈입니다.
- ※ 정답을 아시는 분은 9월 20일(금)까지 정답양식을 작성하여 한성대신문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hansungnews)로 보내주시거나, 한성대신문사(BK기업은행 건물 2층)에 내방해 제출해주세요.
- ※ 정답자 중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 ※ 추첨지금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문항1. [1면] 2020년부터는 본교 교과교육과정에 학부제 커리큘럼은 완전히 사라지고    커리큘럼만 남을 예정이다.

문항2. [2면] 학부제가 2학기에 이행할 공약 중 학우들에게 추석 고속버스 티켓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사업은? 답:

문항3. [3면] 지난 7월,   는 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문항4. [6면] 성기 자극 또는 신체 자극으로 성교 시 쾌감이 증가해 그 극점에 도달한 상태는? 답:

정답양식) 이름 / 학부 · 학과 · 제1트랙 / 학번 / 연락처 / 문항1 정답 / 문항2 정답 / 문항3 정답 / 문항4 정답

### ■ 낙산에 올라

어느 강의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무언가 질문을 던진다. 그의 말은 수십 명으로 가득 찬 강의실을 멍하니 울리고, 곧 침묵 속에 메아리친다. 뻔히 정면을 응시하는 수십의 시선. 교수는 두 눈으로 그 사이를 헤집어 보지만 곧 아무런 소리도 찾을 수 없고, 멍쩍은 듯 홀로 답을 일버무리고서 다시 강의를 이어간다. 강의 말미, 질문사항이 있는냐는 교수의 물음에도 답은 침묵으로 흘러나오고, 그 누구도 이 긴 침묵을 깨지 않는다.

교수학습 현장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 하나의 전형이 되었다. 정녕 지금의 대학이란 학생이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큰 배움, 강의실에서 ‘대학(大學)’이라는 명칭이 갖는 그 의미가 급기야 찾아보기 희박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움이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음에도 모두 침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가르침’이란 양방향으로 전제함에도 대학 사회에는 질은 일방향이 가르침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학습자 전체에 만연히 퍼져있는 질문에 대한 기피다. 그 자체로 ‘물음’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이라는 것이 학습자 사이에서 빛어지는 질의에서, 특히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점차 ‘추궁’ 혹은 ‘비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인식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침묵 문화는 점차 가속을 달러왔고, 현재의 침묵에까지 이르렀다. 개인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부딪치고 상처 입어보아야 할 이때에, 단단한 자아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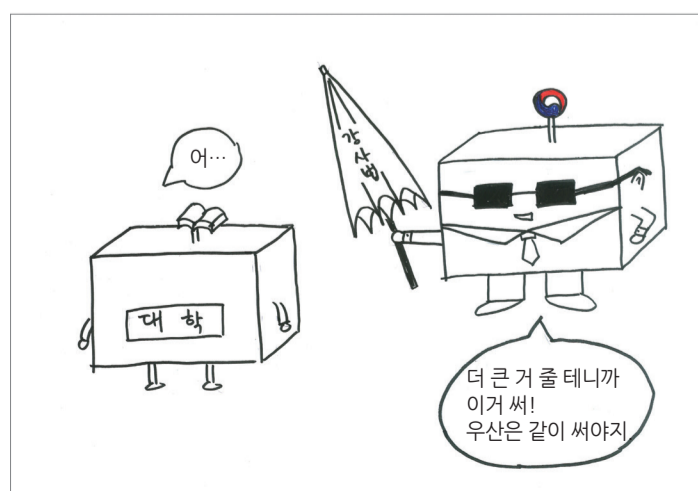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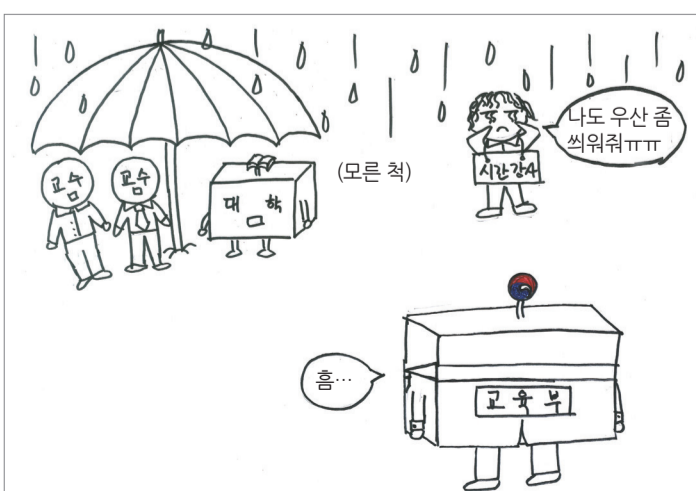
해야 할 지금에 우리 스스로의 자아는 무가력 속에서 텅텅 비어가고만 있는 것이다.

대학의 침묵, 트랙제 도입으로 학습자의 개인화가 급격하게 질어진 지금의 한성을 생각해보면 있어 ‘침묵의 대학’으로 당도할 미래는 특이나 두렵게만 다가온다. 진정한 침묵을 깰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 그 단순한 송곳뿐이다. 배움은 당신으로 말미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자체로 완전하다 일컫고, 타인의 간섭은 ‘불편’이 되어버린 현재, 사소한 충격이라도 달기만 하면 산산이 찢어질지 모를 유약함으로, 서로의 기분을 배려한다는 그 막연한 착함 속에서 정작 대학은 퇴화하고 있다. 이 배움의 터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답은 없다.

최준수(한국어문 4)

## #낙산세컷\_의욕\_앞선\_교육부에\_물난리\_난\_대학가

정영아 기자



# ★★ 한성대신문사 제47기 수습기자 모집 ★★



펜은 칼보다 강하다 ✨

### ✓ 모집대상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본교 재학생
- 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 모집기간

- 8월 19일(월) ~ 9월 13일(금) 18시 접수마감

### ✓ 활동기간

- 입사 후 4학기 동안(2019년 9월 ~ 2021년 6월)

### ✓ 지원방법

-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혹은 한성대신문사(우촌관 중문 IBK기업은행 건물 2층)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 활동혜택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및 금반지 증정

###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장선아 편집국장 010-9786-9709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